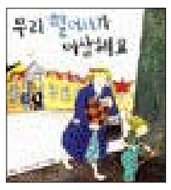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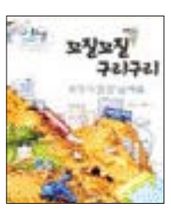
▲레미제라블 비밀찾기=세계의 고전과 대문호들이 관련된 사건을 해결해가는 모험을 통해 고전과 국어 상식의 이해를 이끌어 내는 본격 만화 논술서. UN 인권상 시상식장에서 묘한 숫자와 함께 레미제라블을 언급하는 메시지만 남기고 흔적 없이 은촛대를 훔쳐간 도둑을 찾는 문학수사대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아이세움·8천500원〉

▲마주보는 세계사 교실(제5편)=혼란과 질서가 엇갈리는 18세기를 배경으로 부국강병을 위한 제국들의 다툼을 담고 있다. 제5편 '아시아와 유럽이 서로 다투다'에서는 동남아시아와 인도 대륙까지 진출한 유럽과 동 아시아 세계의 경쟁이 치열하게 그려져 있다. 〈웅진주니어·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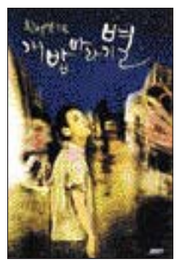
▲우리 할머니가 이상해요=어느날 갑자기, 우리의 부모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낯선 행동을 보이면 어떤 기분이 들까. 치매로 이상해진 할머니와 하루를 보낸 주인공 소녀의 유쾌하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 〈시공주니어·8천원〉

▲한국사를 뒤흔든 열명의 상인=무역과 상업을 적극 활용해 나라의 기반을 닦고 발전시킨 열명 상인들의 성공담을 만날 수 있다. 끊임없는 도전으로 성공신화를 이끌어낸 근초고왕, 장보고, 홍순언, 개성상인, 김만덕 등의 이야기가 소개돼 있다. 〈한림출판사·1만2천800원〉



▲꼬질꼬질 구리구리, 지구가 몸살났어요=환경운동가 최열(환경운동연합 대표)씨가 저학년 어린이를 위해 쓴 환경 책. 이미 포화 상태인 지구의 쓰레기 문제를 통해 환경보호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청년사·9천800원〉

개밥바라기별 황석영 지음



지난 2월 말 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연재되면서 숱한 화제를 낳으며 네티즌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던 황석영의 신작 장편소설 '개밥바라기별'이 책으로 나왔다.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인 황석영은 거의 매일 연재 블로그에서 독자들과 부대끼고 놀며 때론 정담을, 때론 치열한 토론을 해왔다. 1974년부터 1984년까지 한국일보에 '장길산'을 연재한 바 있는 그가 예순을 넘긴 나이에 이번에는 새로운 매체로 젊은 독자들과 소통하고자 용기를 낸 것. 그리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총 조회수 180만여 건이라는 '대박'을 냈다. 인터넷 매체는 가벼워서 본격문학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그 동안의 통념을 깨뜨린 것은 우리 문단에서도 하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신선한 충격이었다.

'개밥바라기별'은 황석영이 작정하고 쓴 자전적 성장소설이다. 소설 속 '유준'은 작가의 분신이다. 준이 지닌 협기, 예술에 대한 갈망, 방랑벽은 파란만장한 삶을 자처했던 황석영의 그것과 닮았다. 이 작품은 주인공 준의 고교 1학년 시절부터 군에 입대한 스물한 살 무렵까지 성장기를 다루고 있다.

고등학생 준은 세칭 명문고에 입학했으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한다. 그는 학교라는 제도의 억압과 허위의식에 반감을 느끼고 체제에 길들여진 어른들의 좀스러움과 초라함이 싫다. 준은 학교를 그만두고 퇴학생 친구 인호와 함께 무전여행을 떠난다. 이후 준은 사찰의 행자 생활도 하고 일용직 노동자로, 고기잡이 선원으로 밑바닥 인생을 경험한다. 공사판 거친 밥을 먹고, 오징어잡이 배에서 쓴 소주를 들이키며 교과서에는 없는 광대한 세계를 탐험한다.

작가는 또 준이와 함께 했던 친구와 가족, 연애 이야기, 학교생활 등 1950, 60년대를 살았던 청춘의 방황을 화자가 다른 12개의 에피소드로 감칠맛 나게 그려내고 있다.

제목으로 쓰인 '개밥바라기별'은 금성의 다른 이름이다. 해가 지면 서쪽 하늘에 나타나는 금성을 쓸쓸하고 애잔하게 부르는 말로, 개가 처량하게 저녁밥을 기다릴 즈음 뜬다고 해서 붙여졌다. 이 이름을 알려준 인물은 준이 한일회담 반대시위에 참가했다가 붙들려 간 유치장에서 만난 떠돌이 노동자 '대위'다 "잘 나갈 때는 샛별, 저렇게 우리처럼 쏠리고 몰릴 때면 개밥바라기."(270쪽)

이 소설이 작가의 청춘이 투영된 작품이기에 그가 청·장년기에 쓴 소설이 어떻게 잉태됐는지 가늠할 수 있게 한다. 고교 등산부 활동은 데뷔작 '입석부근'을, 이런저런 품팔이 노동에 종사했던 방랑생활의 경험은 '객지', '삼포 가는 길'을, 베트남 파병을 앞둔 군인의 복잡한 심내는 '몰개월의 새'를 빚게 한 소재다.

그가 슬쩍 공개하는 유년 시절 일화도 흥미롭다. 급우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광대짓을 하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일부러 상복을 입은 채 공차기를 하며 희희낙락 위악을 부렸던 일은 작가의 내밀한 고백으로도 읽힌다. 또 신인문학상 수상작을 어머니에게 읽어주는 장면은 특히 감동적이다.

그렇다면 온갖 삶의 색깔을 거친 그의 청춘기록을 통해 작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고픈 일을 신나게 해내는 것이야 말로 우리가 태어난 이유이기도 하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때려치운다고 해서 너를 비난하는 어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다. 그들은 네가 다른 어떤 일을 더 잘하게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문학동네·1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청나라 '밀약' 속에 숨겨진 진실

1780 열하 1, 2 임종욱 지음

역사추리소설 '소정묘 파일'의 저자 임종욱이 박지원의 '열하일기'의 여정에 문학적인 상상력을 가미해 '1780 열하 1, 2'로 펴냈다.

소설은 1780년과 2008년을 사는 주인공들이 '열하일기'와 당시 조선과 청나라가 맺은 '밀약' 사이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을 각각의 시선에서 다뤘다.

2008년 박지원의 사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던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손녀는 열하(현재 중국 허베이성 청더)로 향한다. 1780년 박지원과 정 진사는 청의 황제 고희연 축하를 위해 열하로 가던 중 의문의 살인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한문학 박사인 저자가 중국서 수집한 각종 자료를 토대로 쓰여진 소설을 읽다보면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이 역사적 사실과 함께 퍼즐을 맞추듯 이어져 읽는 재미가 느껴진다. 〈생각의 나무·각 권 1만1천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북페어 준비 1년 6개월간의 여정

꿈을 살다 박용준·인디고 북페어 지음

부산의 청소년 인문학 전문서점인 '인디고 서원'은 오는 21~24일까지 인디고 유스 북페어를 연다. 이번 행사는 책 판매가 주를 이루는 기존 북페어와는 달리 전 세계의 창조적 실천가들이 함께 모여 생각을 나누는 인문학 축제다.

박용준과 인디고 유스 북페어 프로젝트 팀이 함께 쓴 '꿈을 살다'는 북페어를 준비한 1년 반 동안의 여정을 소개한 책이다.

인디고 아이들은 문학, 철학, 역사, 사회 등 6개 카테고리를 나눠 프랑스, 남아공, 호주, 콜롬비아 등 전 세계로 발길을 옮겼다. 인상 깊게 읽었던 책들의 저자 등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초청장을 전하기 위해서다.

책에는 북페어를 꿈꾸게 했던 원동력인 '에코토이, 지구를 인터뷰하다'의 올리비에 프뤼쇼, 국제 잡지 '투테이스 유스 아시아'를 만드는 네팔 청소년과의 만남 등이 담겨 있다. 〈궁리·2만3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읽기

노자의 '도덕경'

나는 도가(道家)는 아니지만 세상을 아무 거리낌 없이 평안하고 자유롭게 살다가 떠날 수 있는 길은 없을 까 하는 것을 두고 많은 생각을 굴려온 사람이다.

그런 삶의 형태를 찾자면 권력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자가 된다거나 유명한 예술가 등 선택을 하자면 헤아릴 수 없이 많겠지만 게으르기 짝이 없는 나에게는 모두가 가망 없는 일이었다.

이 책 저 책 뒤적거리기도 하고 지루할 정도로 낮잠을 자다가 놀란 사람처럼 뛰어나가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며칠 만에 한가지씩의 회한과 가슴앓이 같은 것을 안고 돌아오곤 하였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만난 것이 노자(老子)였다. 그런데 노자가 남긴 '도덕경'이라는 것을 보니 귀신 씨나락 까는 소리랄까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가인가 하면 부이고 부인가 하면 가로 통하는 정신병자의 헛소리 같았지만 불가에서 화두를 씹는 마음으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있는 것 같지만 없고 가(可)인 것 같지만 부(否)라는 희한한 의식놀음의 경지에 접근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해괴하고 실속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지만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 버리

근심없고 거칠 것 없는 세상

지 않고 아껴주는 것을 보면 이 세상은 역시 노자다운 대목이 있는 살만한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상의 말이 나에 대한 적중된 설명은 되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나는 노자라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매일처럼 대화를 나누다가 장자도 더러 만난다.

도가도(道可道)면 비상도(非常道)요, 명가명(名可名)이면 비상명(非常名)이니라. 도를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도가 아니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노자의 '도덕경'은 반문명적 역설로 시작된다. 유가들에 의해서 형성된 문명질서에 대한 반발에서 형성된 세계관이다.

노자는 도덕경 37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도상무위(道常無爲)로되 이무불위(而無不爲)이니라. 후왕(侯王)이 약능수지(若能守之)면 만물(萬物)이 장자화(將自化)니라.'

도는 항상 자연에 순응하여 작위함이 없으나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군주가 만일 이 도를 능히 지킬 수 있다면 천하 만물은 저절로 화육될 것이다.

장자는 노자보다 한 술 더 뜬 초월적 경지를 추구하고 있다. 장자의 첫 장인 소요유(逍遙遊)는 "아무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노닐다" 라는 뜻을 가진 제목으로 출발하고 있다.

노자와 장자의 가르침은 나중에 잡다한 신선신앙으로 분화하여 가지만 중심을 흐르고 있는 것은 드높은 세계에 존재한다고 믿는 도의 세계에 접근하여 자유와 이상을 얻는데 있었다. 근심 없고 거칠 것 없는 자유로운 땅은 과연 어디일까.

오랫 동안 방황하며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만난 것은 장자의 소요유(逍遙遊)에 나오는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鄕)이었다. 리명한〈시민문화회의 이사장·소설가〉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젼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가공인중개사
☎(代)234-8216 핸 011-609-0896
(광주우체국부근)

상가건물 매도
·금남로 대로점 대지 231㎡(70평) 5층 20억
·충장로 대지 230(70평) 5층 18억
·충장로 대지 208(63평) 4층 18억
·충장로 대지 165(50평) 4층 23억
·황금동 대지 132(40평) 3층 10억
·광산동 구시청 대지 537(163평) 4층 15억
·불로동 천년대로변 코너 대지 294(89평) 4억
·용봉지구 3면도로 단층 대지 1,190(360) 8억
·월산동 대로변 대지 390(118평) 6층 6억5천만

토지매매
·운림동 4차선점 2,627㎡(804평) 당 160만
·운림동 녹지 3,966(1,200평) 2억4천만
·월산동 대로점 주거지 1,090(330평 4억3천만
·봉선동 25m점 2,315(700평) 3.3㎡당 250만
·도천동 자연녹지 16,530(5천평) 3.3㎡당 75만
·도산동 전철역앞 주거지 6,611(2천평) 20억
·인창동 주거지 11,900(3,600평) 3.3㎡당 80만

전원주택
·청풍동 주거지 760㎡(230평) 당 70만
·금곡동 주거지 1,490(450평) 1억4천만
·운림동 대지 463(140평) 한옥 1억1천만
·지산동 녹지 3,640(1,100평) 3억5천만
·담양 창평 소재지 대지 2,300(700평) 2억
·화순 남면 대지 660(200평) 한옥 4천만

임야
·화순 도곡 관리지역 52,900㎡(1만6천평) 당 8만
·화순 도곡 야산 105,700(3만2천평) 3억
·화순 도곡 3,200평 3.3㎡당 6만
·화순 남면 관리지역 165,000(5만평) 5억
·화순 한천 218,000(6만6천평)3.3㎡당 6천원
·화순 이양 53,000(1만 6천평) 9천만

기타부동산
·조대 대로변점 대지 760㎡(230평) 8억
·금호동 중원@ 대로점 330평 3.3㎡당 400만
·화순 계곡집 6,600(2천평) 8천만
·보성읍 자연녹지 30,000(9천평) 1억3천만

상무랜드공인중개사
☎(代)383-5221 핸 011-609-5221
(구상무대 정문)

▶건물
- 대607/건1,352 보36억/월 3,000만원 매매가 85억
- 대142/건200 보1억/월세 1,000만원 매매가 15억 5천만원
- 대260/건2,000 보20억/월 4,000만원 음자 18억 매가 65억
- 대200/건900 보30억/월 2,000만원 매매가 55억
- 대300/건1,200 보4억/월 1,100만원 매매가 24억
- 대125/건175 보1억/월 800만원 매매가 15억5천

▶땅
(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 3,421㎡(1,050평) 3.3㎡당 700만원
- 2,800㎡(850평) 3.3㎡당 1,200만원
- 727㎡(220평) 3.3㎡당1,200만원(유동가)
- 450㎡(136평) 3.3㎡당 850만원(유동가)
- 330㎡(100평) 3.3㎡당 800만원(시역입구)

(기타지구)
- 자연녹지 대로변 3,000평(예식장, 학원적합) 평당 180만원
- 생산녹지 대로변 3,000평(예식장, 학원적합) 평당 250만원
- 주거지역 800세대 아파트입구 877㎡(266평) 3.3㎡당 350만원(슈퍼적합)
- (농림) 광산구 등산동 73,000㎡(2만2천평) 농장 3.3㎡당 9만원(등산동)
- (생촌동) 대지 512㎡(155평) 20m 도로접 3.3㎡당 265만원
- (장동동) 3,760㎡ (1,140평) 평당 40만원

▶병원·학원·수퍼·식당 기타
- (하남삼성홈플러스옆 사거리치도) 근린지구1,652㎡(500평) ㎡당 600만원

▶모텔·호텔매매·사우나
- 객실35개 음자16억 매가28억
- 객실70개 매매가88억

★24시간 전화 물건 접수합니다★

HOMECON RESEARCH & REAL ESTATE **홈컨 不動産 리서치**
상무지구 한국은행 뒤 ☎ 062)385-9994

(부동산) 프로젝트 伸介 · 開發 · 리서치 선언!

공동대표 김윤삼
·호남대 부동산학 석사
·한국 능률공사 2기
·광주대도시부동산학과출강
·부동산개발자무사분석은행
·부동산중개실무13년

공동대표 박길수
·성균관대 法大출
·삼성 20년(기획, 교육, 법무)
·부동산업 실무교육 저자
·TV패널, 세미나칼럼 등
·(부동산업)기획,분석전문가

공인중개사 소장 정문호
·농기자업 업무 5년
·도지개발허가중 승계담당

공인중개사 소장 김기영
·IBA부동산전문교육 이수
·상가입지분석 담당

- 받은 것보다 큰 이익을 줍니다.
- 얼굴을 걸고, 책임 있게 합니다.
- 천천히, 정밀하게 합니다.
- 차분하고 정돈된 사람들입니다.
- 고객에게 늘 __ 을 줍니다.

(2억이상) 문석된물건 수 (정리중) 건
(2억이상) 의뢰 고객수 (정리중) 분

※ 프로젝트 중개, 개발, 리서치 관고객의뢰 후 시장, 입지, 사업타당성, 의뢰성분석등을 거친후, 최적물건이나 성공 조건등을 전문 대부로 추천하여, 책임있게 거래하는 중개 등을 말함.

금 당 부 동 산
☎(062)223-7400 핸 016-632-5659
(충장로5가 사거리 2층, 금남로 5가와 엔터시네마 중간)

매매·교환·개발·건축부동산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

공시가·감정가 70%이하
⊛농성동 준주거200평 공시가 9억7천 매도6억4천
⊛임동71평 공시가1억7천 상가원룸적합 1억2천
⊛봉선동 소방도로코너 대지45 건평103 일부는 공실이고 전세3천 월58만원 매도1억5천5백
⊛안마시술소, 노래방등 경매물건 우산동 대지 185 건평624 법상가 18억 매도 9억
⊛양동 상업지 123평 원룸,다세대 적합 대출 2억 공시가 3억2천 매도 2억4천
⊛월산동 4차선도로 117평 공시가4억6천 매도 3억

감정가이하
⊛대인동 대지100 건평367 노래방·PC방 원룸·투룸 18개와 주택 45평 법인이전합 8억3천
⊛신안동 나대지 94평 공시가 3억3천 매도2억4천
⊛북동병원 대지123 건평220 공시가3억2천 매도4억
⊛금남로5가 목욕탕 340평 법상가 9억 매도 5억 전세2억 월230 임대도 가능
⊛호남동 세무서 건너 대로변106평 9억6천
⊛풍향동 주택과 여관 대지108 건평 138 주택 4채는 6천에 임대중이고 여관은 원룸으로 개조 적합 대출1억2천가능 매도 1억9500
⊛수기동 버스도로 대지33 건평118 공시가2억 2,3,4층은 공실 현재는 전세6천 매도2억8천
⊛금남로5가 큰사거리 부근 4층건물 대지15 건평49 다양한 용도 2억3천
⊛대인동 버스도로 4층건물 대지23 건평77평 3층은 공실 1억6천5백

부 자
⊛벽진동 대지124 주택은 수리해야함. 공시지가 9천4백 매도9천만원
⊛다용도사용 미륵동 575평 공시가5억 매도5억4천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관리지역임야2800평 국유지400평도사용가능 복지시설등적합 3억2천
⊛장성군 삼계면 서창주거지 989평 1억천
⊛소촌동 331평 공시가2억3천 매도 2억천
⊛전원생활적합 광산구 송산동 대지450평 호남대학에서 6분 공시가1억3백 매도1억4천
⊛전원주택지 개발된곳 담양군 남면 3556평 대출7500 매도1억7800만원
⊛원룸적합 나대지 광주공원부근 143평 1억8천
⊛담양군 대덕면 고속도로 대덕터널부근 관리지역 임야 5455평 복지시설, 종교시설 적합2억 3천
⊛담양 금성면 도로접 관리지역 답3800평 공장, 복지시설등 적합 1억4천
⊛동구 소태동 2차선도로 439평 공장, 창고, 복지시설등 적합 대출1억9천 매도 2억3천5백

매도·교환
⊛공장부지 담양군 무정면 1050평 1억5백
⊛나주 노안면 학산리 대지206 건평25 마트나 양동금호아파트와 교환가 1억6천
⊛절(사찰) 광산구 산정동 아파트와 상가지역 대지61 건평87 대출1억3천 매도2억9천
⊛절(사찰)산수오거리 3층건물 1억6천
⊛담양군 추월산 밑 담양댐에 접한 땅1090평, 별장·연수원·사찰·요양병원적합 3억2천만원
⊛영당 전원주택지 곡성읍 서계리 광주에서20분 대지483평 오피스텔아파트, 상가와교환 6천만원
⊛전원주택 나주 남평 풍림리 한옥 땅255평 9천만원
⊛묘지15기 만들어진곳. 담양군 봉산면 국도접 800평 명당자리임. 광주에서10분 8천만원
⊛감진군 군동면 녹차밭6천평 포함한 밭18,000평 건물과 교환 5억8천
⊛농성동 대지44 건평120 전세1억 월40, 2억6천
⊛구례군 섬진강부근 땅 38,425평 수목원,펜션,종교시설,약초재배적합 주택있고 6억5천

이전만해갈 물건
⊛신안동 대지75 건평 293 전세3천 대출2억5천 가능 지하, 1층일부 3·4·5층 공실 2억9천5백
⊛북구 우산동 대지70 건평 150평 감정3억5천 전세 7300은 내주어야하고 대출 1억9천 매도700
⊛남광주시장 원룸19개 대출1억3600 원룸9개 전세4천 월150만원 원룸10개는 공실 매도800만원